



■ 멧돼지 및 고라니 피해 발생 실태

-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, 효과적인 개체 조절 수단은 제한적이다.
- 이들 야생동물은 옥수수뿐만 아니라 고구마, 들깨, 콩 재배지까지 훼손하며, 포장을 집단적으로 짓밟아 큰 피해를 유발한다.
- 특히 멧돼지는 옥수수가 여우는 7월경에 집중적으로 출몰하며,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특성상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.

■ 멧돼지 및 고라니 피해 방지 방법

- 멧돼지는 알곡이 있는 작물을 선호하므로, 옥수수 포장 주변에 철조망, 전기울타리, 전기목책, 전기충격기 등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
- 호랑이 울음소리나 배설물 등을 이용한 기피 유도 방법도 알려져 있으나, 효과는 일정하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고라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할 경우, 울타리 높이는 최소 1.5m 이상 확보해야 뛰어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.
- 포장 주변에 지주대를 설치하고 줄에 돌이 든 깡통 등을 매달아 소음과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식도 일정 수준의 피해 경감 효과가 있다.

■ 옥수수 대체 사료작물 재배

- 멧돼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하계 사료작물로 옥수수 대신 사료피, 수수×수단그라스, 테오신티 등 대체 작물 재배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.
- 테오신티는 형태적으로 옥수수와 유사하나 알곡이 거의 없고, 잎과 줄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조사료 작물로서 야생동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.

〈 옥수수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성 비교(축산원, 2014) 〉

작물명(품종명)	생초 수량(톤/ha)	건물률(%)	건물 수량(톤/ha)	TDN 수량(톤/ha)
옥수수(광평옥)	73.3	27.2	20.0(100)	14.4(100)
수수류(점보)	133.3	14.4	19.2(96)	11.1(77)
테오신티(극동6호)	144.1	21.2	30.5(153)	18.1(126)